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행치 않겠노라 하였으며”(렘 6:16).

옛신앙

Old-time Faith

www.oldfaith.net

‘옛신앙’이란 옛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이 증거했던 신앙, 오직 정확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에만 근거한 신앙, 오늘날 배교와 타협의 풍조에 물들지 않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04072 서울 마포구 독막로 26 (합정동) 합정동교회 김효성 목사, ☎ 02-334-8291, E-mail: oldfaith@hjd.net

주일오전설교 | 무질서한 형제들에 대한 교훈

[6절]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규모 없이**(아탁토스)[무질서하게(KJ), 무법하게(NASB)]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遺傳)[교훈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곧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명하기를, “규모 없이 행하고 우리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고 말한다. ‘명한다’는 말은 ‘권면한다’는 말보다 강한 뜻이다. 권면하는 바도 순종해야 하지만, 명령하는 바는 더욱 순종해야 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는 말은 이 명령을 인간 바울의 권위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로 하는 것임을 보인다.

‘규모 없이,’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행한다는 것은 ‘사도들에게 받은 유전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킨다. ‘유전(遺傳)이라는 말(파라도시스)은 ‘받은 교훈’을 가리킨다. 그것은 교리적 내용과 윤리적 내용을 포함한다. 사도 바울은 2:15에서도 그들이 받은 교훈을 지키라고 말하였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을 지키라.” 신약성경은 사도들의 유전 즉 사도들이 교훈한 내용이다. 신약성경의 교훈을 순종치 않는 것이 규모 없이 즉 무질서하게, 무법하게 행하는 것이다. 데살로니가교회 안에는 사도들의 교훈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이 있었다. 그들은 같은 신앙을 고백하는 교회 안에 있는 형제들이었다. 당시에 그들은 교리적 문제에 있어서는 이상이 없었고 단지 윤리적 문제에 있어서 사도의 교훈을 순종치 않고 있었다고 보인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그런 고의적 불순종자들로부터 ‘떠나라’고 명령하였다. ‘떠나라’는 말은 교제의 단절을 의미한다. 어떤 형제가 성경의 교훈대로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가 바른 신앙을 가진 형제라 하더라도, 우리는 그와 교제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이 사도의 명령이다. 이것은 우리가 지켜도 좋고 안 지켜도 좋은 권면이 아니고 반드시

지켜야 할 명령이다.

물론, 이것은 교회를 따로 세우라는 의미가 아니다. 교회 안에 한두 명의 형제의 잘못 때문에 새 교회를 따로 세워서 안 된다. 성경과 교회 헌법의 규정대로, 교회는 잘못을 행하는 자를 권면, 책망하고, 성찬 교제에서 그를 제외하고, 마지막으로 그를 제명, 출교시켜야 할 것이다. 이것이 교회의 권징 순서이다. 칼빈의 말대로, 권징은 교회의 힘줄과 같다. 교회가 권징을 충실히 행할 때 교회는 튼튼한 교회가 되지만, 교회가 바른 권징을 포기하면 힘을 잃게 될 것이다. 권징을 포기한 교회는, 비록 그 교회에 교인수가 많고 재정이 넉넉할지라도, 진리의 수호자와 전파자로서는 무능한 교회 가 되고 말 것이다.

그러나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적일 때도 있다. 물론, 교회가 전체적으로 배교하고 변질되는 일은 쉽게 일어나지 않는다. 교회 안에는 참된 신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교회는 쉽게 타락하지 않는다. 참된 성도들이 깨어 있기만 하면 그들은 교회의 타락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권징을 포기한 교회는 서서히 타락할 것이다. 16세기 종교개혁이 있기 전에 교회는 전체적으로 배교적이었고 진리를 붙드는 자들은 매우 소수이었다. 오늘날 기독교계도 16세기 종교개혁 때와 비슷하게 상당히 배교적이고 해이해져 있다. 세계적으로 역사적 대교단들은 이단적 자유주의 신학을 포용하는 넓어진 교회가 되었고 불신실하고 권징이 없는 교회가 되고 있다. 오늘날 성경적 교회들이 직면한 매우 중요한 한 문제는 ‘교제’의 문제이다.

[7-9절] [이런]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 것을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알기 때문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규모 없이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누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주어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데살로니가 교회의 문제는 게으르지 말고 열심히 일하며 살아야 한다는 사도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들에 관한 것이었다. 바울은 이런 명령을 위

해 자신을 예로 들었다. 그는 양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주야로 수고하고 일했다. 그는 천막을 만드는 기술자이었고 친히 그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파했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성도들로부터 지원을 받지 않으려 했다. 그것은 그가 물질적 여유가 있어서가 아니고, 연약한 교인들에게 시험을 주지 않기 위해서이었다.

바울의 모범은 목사가 세상일을 하고 교회 사례를 받지 말라는 뜻은 아니라고 본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시대에 성전 봉사자들인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의 십일조로 생활하게 정하셨고 제사장들은 레위인들의 십일조로 생활하게 정하셨다. 이와 같이 십일조 헌금은 구약시대에 성전 봉사자들의 생활비로 쓰였다. 그것이 성전 봉사에 전념하는 자들의 생활비를 위해 정하신 하나님의 방식이었다.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는 전도자들을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도록 뜻하셨다. 고린도전서 9:14, “주께서도 복음 전하는 자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명하셨느니라.” 디모데전서 5:17-18, “잘 다스리는 장로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치는 일을 하는 자들을 더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렸으며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삯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교회의 전임 봉사자들은 교회에서 생활비 받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줄 알고 감사히 받고, 교인들은 그들에게 의식주와 자녀 교육을 위해 필요 적절한 비용을 드려야 할 것이다.

사도 바울의 모범은 단지 목사들과 교회 봉사자들이 전도 활동이나 목회 사역에서 복음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처신해야 함을 보인다. 그들은 돈에 대해 초연해야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교인들에게 누를 끼쳐서는 안 된다. 특히 목사는 그가 전하고 가르치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와 성경말씀이 귀하기 때문에 목사가 된 자이어야 하며 그 귀한 진리를 세상의 돈과 바꾸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10-12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규모 없이 행하여도 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다고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종용히(조용히) 일하고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우리는 일하지 않고 먹으려 해서는 안 된다. 노인들도 힘든 일은 못해도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 청년들은 무슨 일이든지 땀 흘리며 일하는 것을 부

끄러워하지 말아야 한다.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 무슨 일이나 죄 아닌 일을 열심히 해서 돈을 벌어 먹고 사는 것이 떳떳한 일이다. 사람은 게으르면 안 된다. 게으른 자는 음식을 먹을 자격이 없는 자이다.

데살로니가교회 안에는 일하지 않고 일만 만드는 자들이 있었다. ‘일만 만드는 자들’(페리에르가조메노인)이라는 원어는 ‘남의 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busybodies)이라는 뜻이다. 이 말은 자기 일은 충실히 하지 않고 남의 일 참견하기를 좋아하는 자들을 가리킨다. 우리는 자기 일을 충실히 하고 남의 짐은 자주 방문하지 말고 남에게 쓸데없이 자주 전화도 하지 말아야 한다. 조용히 일하라는 말은 야단스럽게 돌아다니며 여기저기에 나타나 남의 일이나 참견하지 말고 자기 일을 조용히, 충실히 하라는 뜻이다. 우리는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고 음식을 먹어야 한다.

[13-15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치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저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지 말고 형제와 같이 권하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는 말은 열심히 일하며 사는 자들이 그렇지 못한 자들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뜻이다.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하나님께서는 선을 행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신다.

우리는 성경의 교훈을 고의적으로 불순종하는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본문은 ‘그를 지목하고 교제를 끊고 그를 부끄럽게 하라’고 말한다. 그러한 태도는 미움이 아니고 사랑이다. 그와 교제하고 그를 인정하면 그가 깨닫지 못하겠지만, 그와 교제를 끊는다면 그가 깨닫게 될 것이다. 잘못된 행동을 버려두면, 교회의 기강이 흐러지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책망하면 잘될 것이다. 그가 그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그와의 교제를 끊고 그를 책망함으로써 그에게 회개를 촉구하고 교회의 교회다움을 지키려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를 원수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야 한다.

[16-18절] 평강(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평안)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이다.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적이기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이다. [아멘.]

하나님께서서는 ‘평안의 주’이시다. 그는 우리에게 언제나 어떤 형편 어떤 처지에서나 평안을 주실 수 있는 자이시다. 사도 바울은 주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기를 기원하였다. ‘일마다’

라는 원어(엔 판티 트로포)는 ‘모든 상황에서’라는 뜻이다. 평안의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또 어떤 상황에서든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실 수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평안을 구해야 한다.

‘편지마다 표적이기로’라는 말은 편지가 기적이라는 뜻이 아니고 단지 ‘편지마다의 표시’라는 뜻이라고 본다. 바울은 다른 이로 하여금 편지를 쓰게 한 후에 편지 끝에 친필로 ‘바울(파울로스)’이라고 서명하여 그것이 그가 쓴 편지임을 표시했던 것 같다.

본문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우리는 사도적 교훈을 따라야 한다. 우리는 신약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도적 교훈들을 주께서 주신 교훈으로 알고 순종해야 한다. 본문에 담긴 사도적 교훈은 우선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는 것과 일하기 싫어하는 자는 먹지도 말라는 것과 일만 만드는 자가 되지 말라는 것을 포함한다. 우리는 게으르지 말고 일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소득을 얻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활을 해야 한다.

둘째로, 우리는 사도적 교훈을 따르지 않는 형제들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 이것도 본문에 담긴 사도적 교훈의 내용이다. 사도적 교훈을 따르지 않는 것을 ‘규모 없이 행하는 것’이라고 표현하였다. 그것은 무질서하게 행하는 것이라는 뜻이다. 우리가 그런 자를 용납하면 사도적 교훈의 권위는 땅에 떨어지고 교회는 무질서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런 자를 원수같이 여기지 말고 형제같이 권해야 한다. 사도적 교훈은 하나님의 권위로 주신 것이므로 교리나 윤리나 다 힘써 지켜야 한다.

우리는 오늘날 특히 자유주의자들, 천주교인들, 은사주의자들, 여자 목사들, 또 기독교 록음악, 동성애 등을 용납지 말고 그런 자들이나 그런 것들을 용납하거나 그런 자들과 교제하는 자들(타협적 복음주의자들)도 용납지 말고 그들의 타협적 언행을 지적하고 책망해야 하고 만일 그들이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과도 교제를 끊어야 한다. 우리는 그런 자들과 교제를 끊어야 한다. 이것이 신약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이다.

셋째로, 우리는 하나님의 평안을 믿고 사모해야 한다. 16절, “평안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하실 지어다.” 우리는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는 성령께서 우리에게 때마다 일마다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심을 알고 믿고 감사하며 그의 평안을 늘 사모하며 누리며 살아야 한다.

주일오후설교

벤엘로 올라감

[창세기 35:1]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세겜에서 디나 사건으로 인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남자들을 죽인 일이 있은 후,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세겜에 머물지 말고 벤엘로 올라가 거기 거하며 거기서 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은 그가 벤엘에서 꿈에 나타나셨던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바를 이행하라는 뜻이기도 하였다.

[2-3절] 야곱이 이에 자기 집 사람과 자기와 . . .

야곱은 즉시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하였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즉시 응답해야 한다. 야곱은 자기 집 사람들 즉 아내들과 아들들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즉 종들에게까지 말했다. 그는 자기 혼자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려 하지 않고 자기 집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순종하려 하였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주실 때에도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육축이나 네 문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다(출 20:10). 우리는 가족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순종해야 한다.

야곱은 그들에게 “너희 중의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고 의복을 바꾸라. 우리가 일어나 벤엘로 올라가자”고 말하였다. 그들 가운데 여전히 이방 신상들이 있었다는 사실은 진장의 하나님의 정책의 또다른 한 이유가 될 것이다. 이방 신상을 가정에 두고서는 평안과 복을 기대할 수 없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기 위하여 먼저 자신들을 정결케 해야 했다. 의복을 바꾸는 일도 필요했다. 옷은 마음가짐과 관계가 있다. 평소에 입는 옷과 놀러 갈 때 입는 옷과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갈 때 입는 옷이 다른 것이 좋다.

[4-5절]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과 . . .

그의 가족들과 그와 함께한 자들이 다 모든 이방 신상과 귀고리들을 그에게 주었고 야곱은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나무 아래 묻고 그곳을 떠났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고 실행하였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도우셔서 그 사방의 성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뒤쫓아오는 자들은 없었다. 우리는 실수와 부족이 많고 세상은 악하고 험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하시면 우리의 삶은 항상 안전할 것이다.

[6-8절] 야곱과 그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본문은 갑작스럽게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의 죽음에 대해 기록한다. 드보라는 죽어 벨엘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되었다. 그는 이삭과 리브가와 함께 헤브론에 살고 있었을 것이지만, 어느 때, 아마 야곱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세겜에 머문 어느 때, 야곱에게로 보냄을 받은 것 같다. 그렇다면, 드보라를 야곱에게 보낸 것은 아마 야곱의 모친 리브가의 배려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이제 그 유모가 죽었다.

[9-10절] 야곱이 밧단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밧단아람에서 돌아온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나타나셨고 그에게 복을 주셨다. 그는 그의 이름이 다시는 야곱이라고 불리지 않고 이스라엘이라고 불릴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하란에서 돌아오다가 압복 강변에서 천사와 씨름할 때 얻었던 그 이름을 재확인시켜 주신 것이다. 그 이름은 그의 새 삶을 증거한다. 그는 더 이상 형을 속였던 자 야곱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이긴 자요 하나님께 복을 받은 자인 이스라엘인 것이다.

[11-15절]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며 많은 백성이 그에게서 나고 왕들이 그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라고 하신 것은 그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 지손을 하늘의 별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많이 하리라”고 약속하신 말씀과 같았다.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주신 땅, 곧 가나안 땅을 그에게 주리라고 약속하셨다.

[16-20절] 그들이 벨엘에서 발행하여떠내

가나안 땅의 삶은 여전히 쓸쓸한 나그넛길이었다.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도 죽었고 사랑하던 아내 라헬도 죽었다.

[21-26절]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떠내

야곱이 그 땅에 거할 때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의 첩 밭하와 통간하였고 이스라엘은 그 일을 들었다. 아직 청소년이었을 르우벤은 부끄럽고 악한 죄를 범하였다.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온 야곱의 가족들 안에도 여전히 죄악된 일이 있었다. 지상에서의 가나안 땅은 여전히 불완전하였다. 우리는 천국에서만 완전한 성화를 볼 것이다.

[27-29절] 야곱이 기랴아르바의 마므레로 가서

야곱은 이삭의 우거하던 헤브론으로 왔다. 이삭이 죽었을 때 야곱은 120세이었고 가나안 땅에 돌아온 지

약 30년 후이었다고 본다.

본장의 교훈을 정리해보자.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벨엘로 올라가서 거기 거하며 거기서 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다(1절). 벨엘은 야곱이 형 에서의 낫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날이 저물어 밤에 자다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던 곳이며 하나님께 서원했던 곳이다.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온 가족과 함께 이방 신상들을 제거함으로 자신들을 정결케 하고 벨엘로 떠났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야곱에게 그 주위의 이방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심으로 그들을 뒤쫓지 못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성경말씀을 순종하라고 명하셨다. 신명기 10:12-13,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나? 곧 네 하나님 여호와의 경외하여 그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날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와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마태복음 28:20, [예수님]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데살로니가후서 2:15, [사도 바울]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遺傳)을 지키라.”

둘째로, 하나님께서 벨엘에서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고쳐주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씀하시고 그 땅을 그에게 주겠다고 약속하셨다(9-12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와 ‘성도’라는 새 이름을 주셨다. 요한복음 1:12,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로마서 1:7,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 하나님께서는 또 신약교회에 세계복음화의 명령을 주셨고 영광의 부활과 영생과 천국 기업을 약속하셨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구원의 복과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세계복음화의 전망과 부활과 영생과 천국 기업의 약속을 항상 감사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며 살아야 한다.

셋째로, 야곱에게 가나안 땅은 여전히 사랑하는 아내의 죽음이 있고 만아들의 부끄러운 실수와 죄악이 있는 나그넛길이었다. 우리에게도 이 세상은 여전히 죄와 슬픈 일이 많은 나그넛길이다(대상 29:15). 우리의 본향은 여기가 아니고 장차 올 저 세상이다. 사도 베드로는 성도들의 소망이 그들을 위해 하늘에 간직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이라고 말했다(벧전 1:4). 우리는 이 세상이 나그넛길임을 알고 천국을 우리의 참된 영원한 본향으로 삼고 늘 사모해야 한다.

책 안내

- 요한계시록 강해. 2판. 173쪽.
- 소신지서 강해. 2판. 318쪽.